

재일한인의 문화공공외교에 대한 연구*

– ‘사천왕사왔소’ 축제를 중심으로

지충남**

| 국문초록 |

이 연구는 문화공공외교의 사례로 오사카의 4대 축제로 알려진 ‘사천왕사왔소’ 축제를 분석하였다. 2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축제는 한일의 문화적 교류 재현과 우호를 위한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다. 축제의 변천 과정은 장소, 주관 및 후원기관, 참여자를 기준으로 1990~2000년까지 제1기와 2003~2019년의 제2기로 구분하였다. 축제의 문화공공외교적 요인은 첫째, ‘한일의 바른 역사’ 공유를 목적으로 열리는 민족축제이다. 둘째, 쌍방향 소통과 개방적 네트워크는 오사카 재일한인과 일본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발전하였다. 셋째, 한민족의 문화 재현과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한일의 정상이 축사를 보내는 오사카의 유일한 축제이다. 시사점은 첫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공공외교의 자원으로 재일한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축제의 동력 약화를 해소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한일 양국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부교재에 사천왕사왔소 축제 내용을 수록한다. 넷째, 다문화공생을 실천하는 장(場)으로 축제를 활용한다.

주요어: 문화공공외교, 사천왕사왔소, 축제, 재일한인, 오사카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46553).

** 전남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소 연구위원(jicnam1130@hanmail.net)

| 차례 |

1. 서문
2. 이론적 배경
3. 축제의 전개
4. 결론

1. 서문

최근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의 추세와 함께 기술, 정보, 커뮤니케이션, 지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21세기 국제정치에서 ‘힘’과 ‘돈’뿐만 아니라 ‘쌍방향 소통과 공감’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른바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기반한 ‘소통의 정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었는데, 변화의 일례로 문화공공외교(culture public diplomacy)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¹⁾ 문화가 공공외교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소프트파워, 즉 문화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화는 국경과 언어로 분절된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주고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²⁾ 그리고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방적 전수에서 벗어나 쌍방향으로 교류가 일어나야 한다. 전통적 문화외교는 문화·예술·언어에 대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해외에 관광 사무소나 문화원을 설립하여 다른 문화와의 단선적 교류를 통해 자국의 가치나 이미지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³⁾ 반면 문화공공외교는 전통적 문화외교의 수단과 방법 이외에

1) 김상배, 「공공외교의 이론적 이해」, 김상배 외, 『지구화 시대의 공공외교』, 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2019, 15쪽.

2) 신진, 「문화교류의 활성화와 한류의 확산의 영향력과 공공외교」, 『대한정치학회보』 21-1, 대한정치학회, 2013, 10쪽.

3) 이진영, 「문화외교와 소셜미디어 활용: 디지털 문화공공외교의 대두와 개념화를 중심으로」

도 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자국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의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확산시킨 한류(韓流)는 국가 이미지를 높였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 혹은 반한감정을 완화시켜 주는 촉매제이다. 즉 한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문화공공외교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⁴⁾ 한류의 인기를 기반으로 2012년 가수 싸이의 빌보드(Billboard) 순위 2위, 2020년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핫 100의 1위,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등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인기는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매개체로서 문화공공외교 측면에서 매우 소중한 홍보 자산으로 발돋움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쿄(東京) 신오쿠보(新大久保) 코리아타운과 오사카(大阪) 이쿠노(生野) 코리아타운에서의 한류 붐은 타운의 활성화와 함께 상품 판매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한편 한일은 협력과 갈등, 그리고 대립을 반복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위안부, 독도와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 등의 쟁점을 놓고 한일 양국은 불안정한 갈등과 협력의 패턴을 지속하고 있다.⁵⁾ 근래에는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의 경제 제재가 있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종료 효력의 정지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젊은 층은 한류를 포함한 한국 대중문화를 추종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제4차 한류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한국문화의 전파와 확산의 결과, 사회문화적 교류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일한인 다수가 정주하고 있는 오사카는 해방 이전부터 일제의 강제징

로], 『문화와 정치』 5-4, 한양대 평화연구소, 2018, 79쪽.

4) 신진, '앞의 논문,' 2쪽.

5) 최은미, 「갈등과 협력의 한일관계, 20년의 변화와 성찰(1998~2017)」, 『평화연구』 26-2,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8, 85쪽.

용으로 많은 동포들이 집거지를 형성한 지역이며, 한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장소이다. 이러한 오사카는 삼국시대부터 교류가 행해졌던 곳으로 도톤보리(道頓堀)의 신사이바시(心齋橋)로 부르고 있는 신라교, 신사이바시역 근처에 위치한 고려교(高麗橋), 히가시스미요구(東住吉區)에 있는 백제대교(百濟大橋) 등 도래인(渡来人)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또한 오사카는 재일한인들의 여러 축제가 발현된 공간이며,⁶⁾ 한국계와 조총련계 학교의 존속, 이쿠노 코리아타운은 한국문화의 매개 장소이자 한류의 발신지 역할의 수행 등 재일한인 올드커머 사회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이 연구는 문화공공외교의 사례로 한일의 역사적 공유물인 오사카 ‘사천왕사왓소(四天王寺ワッソ)’ 축제를 분석할 것이며, 시간적 범위는 1990~2019년으로 한정하였다.⁷⁾ ‘사천왕사왓소’는 도래인들의 영빈관인 사천왕사와 우리의 인사말을 뜻하는 ‘왓소’를 조합하여 축제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축제는 1990년 재일한인들을 중심으로 출발하였지만, 2003년부터는 뜻을 같이하는 재일한인과 일본인이 함께 사단법인을 만들어 주관하고 있다. 연구 내용은 첫째, 문제 제기, 둘째,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공공외교와 문화공공외교 개념, 축제와 재일한인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셋째, 사천왕사왓소 축제의 전개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화공공외교의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축제의 동력 및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6) 飯田剛史, 「在日コリアンの祭りと民族-民族文化運動の自己組織化」, 『在日コリアンの宗教と祭り-民族と宗教の社会学』, 東京: 世界思想史, 2002, 321-322頁.

7) 왓소문화교류협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내세워 2020년과 2021년 축제를 열지 못하였다. 대신에 약식으로 ‘미팅 2021’ 이벤트를 열었다.

2.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이 논문의 선행연구는 재일한인의 문화공공외교, 오사카의 축제, ‘사천 왕사왔소’를 분석한 연구 등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재일한인의 문화공공외교와 관련하여 후지사와 키이치·김승배의 연구는 협동적 공공외교의 사례로 ‘공유’와 ‘가시화’라는 개념으로 한일선린우호의 상징인 ‘조선통신사’를 분석했다. 조선통신사의 재현과 가시화는 한일 양국이 공동의 기억을 공유하고 보존하려는 의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⁸⁾ 한영균은 일본의 한류 붐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역사적 갈등으로 인한 한일관계의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호혜 문화교류를 실천해 나가는 한류를 통해 한일간의 소통의 끈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일본 한류의 의미를 찾았다.⁹⁾ 임영언·김한수는 ‘2·8독립선언 기념비’와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및 충훈탑 건립’을 문화공공외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014년 건립된 충훈탑은 재일한인과 한국정부가 협력한 문화공공외교의 상징탑으로 평가하였다.¹⁰⁾ 허성태·임영언은 일본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재일한인 사회의 공공외교적 대응과 관련하여 위안부 기림비 건립에 미친 영향을 고찰했다.¹¹⁾

둘째, 오사카 재일한인들의 축제를 분석한 연구이다. 황혜경은 ‘이쿠노

8) 후지사와 키이치·김승배, 「협동적 공공외교로서의 한일관계: 조선통신사의 공유와 가시화」, 『한국정치학회보』 52-2, 한국정치학회, 2018, 101-121쪽.

9) 한영균, 「일본 내 한류의 현황과 한일관계: 한류의 문화외교 기능을 중심으로」, 『국제학논총』 32,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0, 5-34쪽.

10) 임영언·김한수, 「재일코리안 기념비 건립에 의한 민족정체성 확립과 문화공공외교 성과 고찰」, 『일어일문학』 68, 대한일어일문학회, 2015, 385-408쪽.

11) 허성태·임영언, 「일본정부의 위안부문제 인식과 동포사회의 공공외교적 대응 고찰: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4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159-176쪽.

민족문화제'의 개최는 민족문화의 계승과 호스트 사회에 저항하는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¹²⁾ 이쿠노 민족문화제는 한민족의 조직 중심적 운동이자 차별의식이 강한 일본사회에 대해 민족문화를 정치적 행동으로 옮긴 운동이었다.¹³⁾ 이쿠노 민족문화제는 코리아타운 형성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재일동포와 일본사회의 다양성, 혼종성, 타자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¹⁴⁾ '이쿠노 코리아타운' 축제를 분석한 주동완은 특징으로 재일한인들의 정체성 확립, 연대의 강화, 존재의 표출, 주류 사회와의 공생 의식의 발로를 주장하였다.¹⁵⁾ '원코리아 페스티벌(one korea festival)'을 문화운동으로 접근한 鄭甲壽(정갑수)는 이 축제를 재일코리안의 민족축제로 규정하면서 독자적인 민족문화를 실천하는 장(場)으로 분석했다.¹⁶⁾ 반면 통일문화운동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물은 한반도 통일과 문화를 연계한 원코리아 페스티벌은 새로운 통일운동의 형태이자 다문화공생과 평화를 추구하는 운동으로 평가하였다.¹⁷⁾

셋째, '사천왕사왓소' 축제를 분석한 허규는 민족교육의 기능을 수행, 고

-
- 12) 황혜경, 「재일코리안에 있어서 민족축제 의미와 호스트사회와의 관계」, 『일본문화학보』 46, 한국일본문화학회, 2010, 471-492쪽.
- 13) 飯田剛史, 「在日 コリアンと大阪文化: 民族祭りの展開」, 『フォーラム現代社會學』 5, 関西社会学会, 2006, 43-56頁.
- 14) 박수경, 「재일 코리안 축제와 마당극의 의의: 生野民族文化祭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45, 한국일본문화학회, 2010, 269-288쪽.
- 15) 주동완,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활용한 오사카 '이쿠노 코리아타운 마츠리'의 발전방안」, 『재외한인연구』 40, 재외한인학회, 2016, 19-39쪽.
- 16) 鄭甲壽, 『ハナ ワンコリア道草回顧録: ハナ(하나)』, 東京: ころから, 2015.
- 17) 지충남, 「재일동포와 원코리아페스티벌」, 『OUGHTOPIA』 28-1,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3, 139-184쪽; 전진호, 「원 코리아 운동과 한인 디아스포라」, 『일본연구』 30,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18, 151-174쪽; 이신철, 「재일동포사회의 통일운동 흐름과 새로운 모색: 원코리아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사립』 52, 수선사학회, 2015, 301-327쪽; 김희정, 「재일동포사회의 통일문화운동 원코리아페스티벌」, 『디아스포라연구』 12-2,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2018, 109-147쪽; 손미경, 「오사카 원 코리아 페스티벌: 통일운동에서 다문화 공생의 장으로」, 『재외한인연구』 23, 재외한인학회, 2011, 309-348쪽.

대 한일의 역사 재현을 위한 동포들과 일본인의 가장행렬의 참여는 열린 마당의 축제로 승화, 재일한인 사회나 한일 관계에 매우 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¹⁸⁾ 2004년 개최된 '사천왕사왔소' 축제를 분석한 최석원은 백제문화와의 연관성, 배경, 퍼레이드의 등장인물을 소개하였다. 가장행렬의 문제점은 백제와 일본의 관계가 핵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중심이 된 것은 백제가 잊혀진 '왔소' 구호라는 점에서 축제의 엇박자를 지적하였다.¹⁹⁾ 김란정·박상훈은 축제를 통한 국제교류의 이해라는 관광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한일의 교류사를 재현, 축제 주최자나 참가자, 관객에게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것으로 보았다.²⁰⁾ 이 축제는 고대를 중심으로 일본 열도와 한반도 사이의 선린우호의 관계를 기축으로 하면서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행해졌던 국제적 교류를 보여주는 마츠리이다.²¹⁾ 이민호는 도래인(渡來人)들의 발자취를 재현한 '사천왕사왔소'를 통해 한일 교류사를 고찰하면서 이 축제는 일본에서 한민족의 축제이자 동시에 오사카 시민들의 마츠리이다.²²⁾ 유기준은 민족 마츠리와 역사 재현형 축제로 규정한 사천왕사왔소의 유래, 개최 현황, 운영전략과 재일한인 문화의 역할 등을 분석하였다.²³⁾

이 연구는 '사천왕사왔소' 축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일부 선행연구와

18) 허규, "거리축제 「四天王寺 왔소!」와 축제의 기능," https://www.arko.or.kr/zine/artspaper90_09/19900902.htm(검색일: 2022.01.15.).

19) 최석원, "1천 4백년 전의 韓流, 사천왕사 '왔소' 축제," <http://kjha.kongju.ac.kr/exhibits/show/exhibit-index-07/item/59202>(검색일: 2022.01.14.).

20) 김란정·박상훈, 2018, 「祭りを通した國際交流の理解: 日本の四天王寺ワッソと韓國の朝鮮通信使祭りを事例として」, 『지역산업연구』 41-3, 경남대 산업경영연구소, 2018, 5-23쪽.

21) 上田正昭, 「四天王寺ワッソと難破の再生」, 上田正昭 編, 『アジアと海上の道-古代史の視座』, 東京: 明石書店, 1997, 210頁.

22) 이민호, 『韓流축제의 재발견, 왔소에 오이소』, 서울: 통일일보, 2019.

23) 유기준(兪起濬), 「시텐노지왔소와 在日코리안 文化의 役割 研究」, 『일본문화학보』 44, 한국일본문화학회, 2010, 403-423쪽.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문화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이 축제를 분석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확연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즉 기존연구가 역사·관광·복식·교류의 분석에 집중했다면, 이 연구는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교류를 재현하는 축제, 그리고 오사카 한일 시민들의 축제임을 고려하여 문화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2) 공공외교와 문화공공외교

(1) 공공외교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대중의 태도가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것”이다.²⁴⁾ 마크 레너드(Mark Leonard)는 공공외교란 “타국과 그들의 문화와 사람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 우리의 관점을 전달하는 것, 오해를 바로잡는 것, 공동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계 구축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였다.²⁵⁾ 한국 외교부는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으로 규정하였다.²⁶⁾ 따라서 공공외교는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이 외국 정부 및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국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과 신뢰 구축으로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여 자국의 영향력

24) Nicholas J. Cull, *The Cold War and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American Propaganda and Public Diplomacy, 1945~198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259.

25) Mark Leonard, *Catherine Stead and Conrad Smewing, Public Diplomacy*. London: The Foreign Policy Centre, 2002, p.8.

26) 외교부, “공공외교란?,” <http://www.mofa.go.kr/trade/cultural/p-ublic> (검색일: 2022.04.03.).

을 높이는 외교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타노 미쓰루(北野充)는 공공외교의 목표를 “자국의 대외적인 이익과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그 성과는 자국의 주장에 관한 정책홍보를 통해 실현되는 단기적인 것과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실현되는 중장기적인 것으로 구별하였다.²⁷⁾ 이런 점에서 공공외교는 타국가의 대중을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설득하거나 이미지의 제고를 위한 수단을 활용하여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활동이다.

에이탄 길보아(Eytan Gilboa)는 공공외교를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이 외국 사회의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미디어와 기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세 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²⁸⁾ 그러나 이 모델은 공공외교의 주체와 수단과 같은 특성의 이해에는 유용하지만, 활동의 유형을 파악하거나 정부의 공공외교가 복수 국가의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에이탄 길보아의 3가지 유형을 기반으로 니콜라스 컬(Nicholas J. Cull)은 공공외교의 구성 요소를 해외의 대중과 그들의 견해에 대한 정보를 모아 자료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청취,’ 특정의 행위자가 정책이나 아이디어, 자신의 이해관계를 해외 대중의 마음속에 증진시키려는 ‘옹호,’ 자국의 문화 자원과 성과를 해외에 홍보하려는 ‘문화외교,’ 국가가 학업이나 문화학습을 목적으로 자신의 국민을 해외에 파견하거나 외국 국민을 수용하려는 ‘교류외교,’ 해외 대중과 관계를 맺기 위해 언론과 인터넷을 활용하는 ‘국제방송’ 등 다섯 개로 구분하였다.²⁹⁾ 컬이 주장한 구성요소는 공공외교의 이론화 작업을 정교화 했다는

27) 北野充, 「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とは何か」, 金子将史・北野充 編, 『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 イメージを競う国家間ゲームにいか勝利するか』, 東京: PHP研究所, 2014, 26頁.

28) 첫째, 기본 냉전 모델, 둘째, 비정부 초국가 모델, 셋째, 국가 PR 모델로 구분했다. 에이탄 길보아, 「공공외교 이론의 모색」, Geoffrey Cowan・Nicholas J. Cull, 『Public Diplomacy in a Changing World』, 최영중 감수, 『새 시대의 공공외교』, 고양: 인간사랑, 2013, 104-108쪽.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타국의 대중을 상대로 자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외교의 패러다임을 과거의 정부·경제 등 전통적인 하드파워(hard power)에서 문화예술, 지식, 정보와 같은 소프트파워(soft power) 중심의 공공외교로 변신하고 있다. 즉 전자가 군사력 및 경제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후자는 문화, 외교, 정책에 치중하고 있어 ‘힘’보다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소통하여 지지자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파워에 대해 조지프 나이(Joseph Nye)는 “강제나 회유가 아닌 유인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으로 보았다.³⁰⁾ 왓슨(Iain Watson)은 소프트파워 유형을 국가 권력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는 국가 주도형과 개인과 NGO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시민사회 유형으로 분류하였다.³¹⁾

〈표 1〉 전통외교, 20세기 공공외교, 21세기 공공외교의 비교

외교 요소	전통외교	20세기 공공외교	21세기 신공공외교
주체	정부	정부	정부, 민간주체
대상	상대국 정부	상대국 정부 및 대중 (자국민 불포함)	자국민 정부 및 대중 (자국민 포함)
수단	하드파워	하드파워 > 소프트파워	하드파워 < 소프트파워
매체	정부 간 협상 및 대화	홍보, 캠페인	디지털 매체 등 다양화
관계 유형	수평적(정부간)	일방적, 수직적, 비대칭적	쌍방향적, 수평적 교류 및 협력, 대칭적

출처: 김태환, “21세기 신 공공외교와 포럼외교,”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1, 96쪽; 홍석인, 『그래서 공공외교가 뭐가요?』, 2019, 35쪽.

29) 니콜라스 J. 컬, 「공공외교: 분류학 및 역사」, Geoffrey Cowan · Nicholas J. Cull, 『Public Diplomacy in a Changing World』, 최영종 감수, 『새 시대의 공공외교』, 고양: 인간사랑, 2013, 59-63쪽.

30) Joseph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p.6.

31) Iain Watson, “South Korea’s State-led Soft Power Strategies: Limits on Inter-Korean Relations,”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0, No.3, 2012, p.308.

〈표 1〉에 전통외교, 20세기 공공외교, 21세기 신공공외교 등 3개를 주체, 대상, 수단, 매체, 그리고 관계 유형을 정리하였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 정치, 경제와 같은 하드파워를 일방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던 전통외교와는 달리 21세기 신공공외교는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쌍방향적 측면에서 수평적 교류와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공공외교는 해외 비정부 부문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자국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외교활동이다.³²⁾

신공공외교의 핵심은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쌍방향 소통, 대중의 참여,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먼저 소프트파워는 강제, 명령, 유인, 보상보다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의미한다.³³⁾ 얼마나 효과적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행사하는가의 여부는 성공적인 신공공외교의 척도가 되고 있다. 신공공외교의 또 다른 특징은 여럿이 함께하는 것이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서로 협업하는 네트워크 외교이다. 외교부의 정책홍보, 기업의 첨단제품 이미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대중문화 스타의 매력 등은 신공공외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주체이다. 그리하여 소프트파워로 요약되는 신공공외교의 국제정치가 전개되고 있다.³⁴⁾ 1950~1970년대까지 한국정부가 타국을 상대로 행하였던 외교는 전형적인 전통외교에 속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미국이 받은 충격으로 시작된 외교를 20세기 공공외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21세기 신공공외교는 세계화가 진행되고 인터넷과 SNS가 활발해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32) 노성준, 「공공외교 자산으로서의 한류 현황과 국회의 대응과제」,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66, 국회입법조사처, 2020, 3쪽.

33) Joseph Nye, 'op. cit.', pp. 5-11.

34) 김상배, '앞의 논문,' 23-24쪽.

공공외교 개념으로 민간까지 주체가 확대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며, 관계 또한 수평적·쌍방향적 속성을 갖고 있다.

(2) 문화공공외교

공공외교의 내용 및 형태가 점차 변화함에 따라,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문화공공외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문화공공외교는 공공외교의 하위개념으로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그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과 수용하는 사람 사이에서 쌍방향으로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먼저 문화공공외교와 유사성을 갖고 있는 문화외교와의 차이점을 보면, 문화외교는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기관이 다른 국가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예술, 지식, 언어, 정보, 제도 등을 수단으로 활용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자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등 문화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³⁵⁾ 따라서 문화외교는 문화를 매개체나 수단으로 하는 외교활동이다. 즉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타국과의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여 영향력을 극대화시킨다. 한국 문화를 알리도록 타국에서 공연을 개최하거나 일본에서 코리아푸드페스타, 한일축제한마당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반면 문화공공외교는 선진 문화국가의 매력을 확산하고,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타국 대중들의 호감도 증진과 쌍방향 소통에 초점을 두고 있다.³⁶⁾ 수교기념 및 외교 관련 문화행사의 사례로 한국과 방글라데시 간 친선의 해 기념행사, 한국과 독일의 외교관계 수립 기념행사가 있다. 한국 문화주간 행사는 주재국의 한국 문화원 단독 혹은 한인회와 공동으로 개최

35) 한인회, 「한국과 대만의 ‘문화외교’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11-4, 한중사회과학학회, 2013, 280쪽.

36) 신동민, 「공공외교 목표와 추진방향의 개념적 재모색: 국제관계학 고전적 현실주의 시각에서」, 『사회융합연구』 4-2, 대구과학대 국방안보연구소, 2020, 28쪽.

하는 사례로 중국 심양의 한국주간행사, 위해의 한국경제문화주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한식, 한복패션쇼, K-Pop World Festival 등을 활용한 한국 문화 알리기, 한국 드라마, 영화 전파 등의 행사도 문화 공공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규정할 수 있다. 결국 전통적 문화외교는 일방적인 문화홍보와 공유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문화공공외교는 쌍방향적인 소통과 일반 대중의 참여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공공외교를 정책공공외교와 문화공공외교라는 유형으로 분류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회 공론화, 일본 역사교과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반대, 강제 징용자 등은 한국정부의 대일 정책공공외교의 대표 사례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부의 문화공공외교로는 외교부 산하의 재외공관이 중심이 된 매력 한국알리기, 퀴즈온코리아, 코리아코너,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 외국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확대, 친한 외국인 기반 구축 등이 있다.³⁷⁾

세계적으로 한류의 확산과 인기에 힘입어 우리의 문화, 음식, 언어, 예술, 드라마, K-Pop 등이 각광받고 있다. 한류라는 매개체는 우리와 각기 다른 국가 및 국민들 간의 다양한 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하는 문화 공공외교이다.³⁸⁾ 과거에는 문화가 단순히 그 사회의 생활양식 및 사고를 아우르는 총체였다면, 이제 문화는 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37) 백우열, 「한국 공공외교 전략 및 정책 연구」, 『국가전략』 23-3, 세종연구소, 2017, 16-21쪽.

38) Kenneth A. Osgood and Brian C. Etheridge, "The International History Meets the New Cultural History: Public Diplomacy and U.S. Foreign Relations" Kenneth A. Osgood and Brian C. Etheridge ed., *The United States and Public Diplomacy: New Directions in Cultural and International History*,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0, p.13.

3) 축제와 재일한인

오늘날의 축제는 전통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제, 예술제, 민속제 등을 비롯한 문화행사 전반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축제의 기능으로 다양성과 전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는 축제 가운데 역사적 인물이나 특수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축제는 관람객들에게 소재가 되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당시의 생활풍습, 건축, 언어, 색채, 복식,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요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³⁹⁾

축제의 정의를 보면 “축제는 종교적 제의(祭儀)나 풍요로움을 기원하면서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은 의식행위로 제사나 경축하는 행사”를 말한다.⁴⁰⁾ 골드블라트와 넬슨(Goldblatt & Nelson)은 축제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참가자와 관객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는 공공의 의식이다.”⁴¹⁾ 이렇듯 축제는 초창기에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의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유흥성(遊戔性) 요소가 가미되어 종교적 신성성이 퇴색되었다. 그 대신에 연극, 무용, 카니발, 퍼레이드, 이벤트 등 축제는 놀이 형태로 진화하였다.

축제의 개최 효과, 즉 어떤 이유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첫째, 축제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확대 시킬 수 있다. 둘째, 축제는 일종의 공공재 특성을 갖고 있어 주민들이 개최 준비와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축제의 개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39) 마유리·김은정, 「한국과 일본 축제의 백제복식 재현에 관한 연구: 백제문화제와 사천왕사왕소축제의 행렬복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9-5, 대한가정학회, 2011, 2쪽.

40) 허용선, 『환희와 열정의 지국촌 축제 기행』, 서울: 예담, 2003, 4쪽.

41) Joe Jeff Goldblatt & Kathleen S. Nelson, Th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vent Manage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2001; 김란정·박상훈, ‘앞의 논문,’ 7쪽 재인용.

와 고용 창출에 일조할 수 있다.⁴²⁾ 넷째, 축제는 국가와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 같이 축제를 개최하여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 때문에 국가 및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축제에 매진하고 있다.

일본사회에서 마츠리(祭り)는 '신화적 세계의 표상' 또는 '신성한 역사적 사건의 재현'을 통해 신과 공생함을 확인하고 생명과 질서의 재생을 꾀한다는 점에서 축제의 본질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⁴³⁾ 일본은 그 어느 국가보다 축제가 활성화된 사회이다. 일본의 3대 축제는 도쿄의 간다마츠리(神田祭), 교토의 기온마츠리(祇園祭), 오사카의 텐진마츠리(天神祭)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텐진마츠리는 간사이(関西) 지방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매년 7월 24~25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민속축제이다.

한편 디아스포라(diaspora)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축제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들에게 축제는 공동체의 단위를 상징적·문화적으로 재현해 내는 기제(mechanism)였으며, 개인적 정체성이 종족적 정체성과 결합해 나가는 과정이었다.⁴⁴⁾ 재일한인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축제가 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재일한인들의 집거지 형성이다. 경제도시인 오사카시(大阪市) 인구는 275만 1천명이며,⁴⁵⁾ 재일한인 96,361명이 오사카부에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⁴⁶⁾ 오사카라는 재일한인들의 지역적 거점은 민족문화의 문화접변과 창조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 동포들의 축제가 개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둘째, 이들의 축제는 특정 정치이념을 지양하였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재

42) 고종원 외, 『세계의 축제와 관광문화』, 서울: 신화, 2018, 9-11쪽.

43) 김양주, 「'마츠리'의 생성과 일본사회문화, 그리고 '축제-되기」, 류정아 외, 『세계 축제의 향연』, 광주: 심미안, 2015, 349쪽.

44) 임채완 외,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혼종성과 문화영토』, 성남: 북코리아, 2015, 45쪽.

45) 大阪市, “推計人口・人口異動.” <https://www.city.osaka.lg.jp/toshik-eikaku/page/0000014987.html>(검색일: 2022.01.09).

46) 영주권자 86,412명, 재외국민 중 일반 8,448명, 유학생 1,501명이다.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21』, 2021, 61쪽.

일한국민주통일연합과 같이 이념과 정치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체의 정치성을 배제하고, 한민족의 단합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여 자발적·자생적인 축제를 고안하였다. 셋째, 안정된 경제생활을 기반으로 축제 비용의 일부를 후원하였다. 즉 축제의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용 문제는 축제의 개최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재일한인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력은 축제 개최의 매개체가 되었다.⁴⁷⁾ 넷째, 일본사회의 정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동화정책의 결과, 재일한인들은 민족정체성과 문화를 점차적으로 상실하고,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동포들이 증가하였다. 재일한인들은 일본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항하면서 동포들의 화합과 연대, 민족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축제를 계획하였다.⁴⁸⁾ 다섯째, 1990년 이후 일본사회의 외국인 이주민과 소수민족에 대한 다문화공생의 인식 변화이다. 일본에서 다문화 담론의 논의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을 중핵적인 시책으로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국제화에서 비롯되었다. 1993년 가와사키(川崎)에서 활동하는 주민조직이 '다문화공생의 마을 만들기'를 시에 제언(提言)했으며, 이후 오사카, 교토, 도쿄, 히로시마 등 지자체들이 다문화공생센터를 설치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2006년 일본정부는 '다문화공생 보고서'를 발표하여 다문화공생을 정책 개념으로 구체화하였다.⁴⁹⁾ 여섯째,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 그리고 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재일한인들의 100억 엔의 성금 기부는 모국 발전과 기여에 대한 자부심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2002년 월드컵의 한일 공동 주최 등 올림픽과 월드컵의 한국 개최는 일본인의 재일한인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

47) 김현선, 「재일코리안의 축제와 민족정체성」, 『일본연구논총』 26, 현대일본학회, 2007, 460쪽

48) 지충남, 「앞의 논문」, 146-147쪽.

49) 지충남, 「재일한인의 다문화공생 수용에 관한 갈등 양상: 오사카시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20-3, 한국평화연구학회, 2019, 163쪽

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재일한인들은 축제를 활용하여 민족정체성과 민족 문화를 유지함과 동시에 만남과 화합, 그리고 공생의 장소로 이용했으며, 축제를 통해 소수민족의 존재를 자각하고 있었다.

재일한인들에게 축제는 민족정체성의 확인 수단이자 지역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제이다. 오사카에서 열리는 재일한인들의 축제로는 첫째, 원 코리아페스티벌은 ‘하나(ハナ),’ 통일, 공생, 평화, 화합, 공동체를 핵심 키워드로 제안하면서 35회의 개최 역사와 함께 통일문화운동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둘째, 1983년 시작하여 2002년 제20회를 마지막으로 폐지된 이쿠노민족문화제(生野民族文化祭)로 민족문화와 예술로 구성되어 있다. 농악대, 마당극, 풍물놀이 등의 음악연주와 함께 조선씨름,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의 전개는 동포들이 민족의식을 공유하는 경험의 장을 제공해 주었다.⁵⁰⁾ 셋째, 1994년 출범한 오사카 통일마당(統一マダン)은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 평화로운 아시아, 그리고 차별이 없는 사회를 바라는 민족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넷째, 오사카 하나 마츠리(大阪ハナマトゥリ)는 주민들이 모여서 재일동포의 화해와 교류, 일본 시민과의 공생을 모색하는 평화의 축제이다. 다섯째, ‘사천왕사왔소 마츠리(四天王寺ワッソ祭り)’이다.⁵¹⁾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의 민족문화를 상징적·문화적으로 재현하여 한일의 평화적·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다.

재일한인들은 개인 차원에서 제사·종교를 통해 민족문화를 계승하여 왔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재일한인 중심의 축제가 등장하면서 적극적인 참여하에 집단성을 띤 민족문화와 접촉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재일한인들의 축제는 전통적인 문화와 구분되었다. 즉 이들의 축제는 가족의 경계를

50) 이쿠노민족문화제는 대회의 재정적 부담으로 폐지되었으며, ‘통일마당 이쿠노,’ ‘코리아타운 이카이노 마츠리,’ ‘이쿠노 코리아타운 공생 마츠리’ 등이 이쿠노민족문화제를 계승하였다.

51) 정병호, 「세시와 놀이」, 국립민속박물관, 『일본 관서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2002, 292-297쪽.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표출되고 계승되었으며, 모국의 민족문화를 이식하는 동시에 재일한인 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모국의 축제와는 구별되었다.⁵²⁾ 따라서 축제는 재일한인들에게 민족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이자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제, 그리고 문화공공외교를 활용하는 루트가 되었다.

3. 축제의 전개

사천왕사는 서기 593년에 쇼토쿠 태자(聖德太子)가 건립한 일본 최초의 사찰로 가람 배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중문, 5층탑, 금당, 강당을 일직선에 배치하고 이를 회랑으로 둘러싼 형식이다. 이 사찰은 백제 정립사지와 동일한 양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제의 일본에 대한 불교의 전파와 영향을 간직하고 있다.⁵³⁾ 사천왕사는 고대 일본사회의 근간을 형성해준 ‘도래인(渡來人)’을 맞아들이는 장소였다는 점에서 한민족과 관련되어 있다. 사천왕사의 전각은 화재, 태풍, 낙뢰, 전란 등으로 파괴되었지만 1963년부터 가람의 재건과 시설 복원을 시작하여 1979년부터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사천왕사왔소 축제는 신한은행 출범의 주역이자 재일한인들의 서울올림픽 후원 모금을 주도한 ‘관서흥은(關西興銀)’의⁵⁴⁾ 이희건과 그의 아들 이승재, 그리고 직원과 고객, 재일한인 사업가와 지식인 등 다양한 재일한인들의 참여 의지와 노력이 결합하여 축제를 출범시켰다. 축제의 기획과 관련하여 1987년 이승재의 미국 뉴욕에서의 아일랜드계 이주민들의 ‘성패트릭

52) 김현선, ‘앞의 논문,’ 460쪽.

53) 최석원, ‘앞의 인터넷’ 자료.

54) 모체는 1955년 창립된 ‘오사카흥은’이며, 1993년 ‘관서흥은’으로 개칭하였다.

데이(St. Patrick's Day)' 퍼레이드 광경의 경험은 사천왕사왔소 기획의 동
기유발 요인이 되었다. 그는 뉴욕시 및 경찰의 협조를 받아 소수 이민자들
의 거리 행렬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교통 통제,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 감수
와 다수의 관람객을 목격하면서 재일한인들의 축제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희건과 이승재는 축제의 창안자이자 산파역을 담
당했으며, 간사이 지방에 46개 지점을 둔 신용조합 '관서흥은'은 2000년
까지 주된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관서흥은을 비롯하여 오사카의 재일한인들은 1985년부터 5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990년 “고대 국제교류 재현: 시텐노지 왔소”를 주제로 제1회
사천왕사왔소 축제를 개최하였다. 재일한인들이 즐기는 축제의 출범은 ‘축
제의 나라’ 일본에서 재일한인을 중심으로 한일의 문화적 교류 재현과 우
호를 위한 축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사천왕사왔소 축제의 취지는 첫째, 재일한인들이 용기를 갖고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 둘째, 정체성에 자신감이 없는 동포들에게 자기
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만드는 것, 셋째, 한반도의 고대 도래인들이
일본의 나라 기틀을 세웠으며, 현재의 재일한인들이 그들과 이어지고 있는
후손이란 사실의 인식, 넷째, 한일교류사의 재현으로 동포들에게는 열등의
식의 극복과 자부심, 일본인에게는 한국에 대한 편견의 타파, 다섯째, 국제
도시 오사카의 역사와 글로벌화, 여섯째, 한일 양국의 평화로운 관계 형성
등의 명분으로 축제가 기획되었다.⁵⁵⁾ 또 다른 관점은 오랜 세월 한의 응어
리를 가슴 한복판에 묻고 살아온 재일한인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그 무엇이 있다고 믿는 순수한 마음을 축제의 원동력으로
주장하였다.⁵⁶⁾

이 축제의 특징 중 하나는 공식 명칭의 선정이다. 도래인들의 영빈관으

55) 이민호, ‘앞의 책,’ 28쪽.

56) 허규, ‘앞의 인터넷’ 자료.

로 사용한 ‘사천왕사’와 우리말 ‘왔소’를 조합하여 축제 명칭이 되었다.⁵⁷⁾ ‘왔소’는 고대 백제와 일본의 왕래를 상징하는 단어이지만 일본 축제의 구령소리에 해당하는 ‘왔쇼이(わっしょい)’와 유사하다. 가장행렬에서 참가자와 관람객들이 함께 외치는 ‘왔쇼이’는 새로운 문물을 가득 실은 배가 한반도에서 ‘왔다’를 표현하는 기쁨의 외침이었다.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복식과 기물이 등장하는 가장행렬은 이 축제의 또 다른 특징이다. 축제는 가장행렬, 공연, 체험행사 등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천왕사왔소 축제의 개요를 시계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1회는 1990년 8월 19일 오사카시 덴노지구(天王寺区)에 있는 사천왕사에서 열렸다. 축제에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다양한 문물을 전달하였던 왕인, 원효대사, 신라 무열왕, 고구려 왕족 약광, 을지문덕 등 도래인의 의상과 수행행렬, 사절단을 맞이하는 일본의 주요 인물과의 교류가 가장행렬로 표현되었으며, 25억 엔의 비용이 들었다.⁵⁸⁾ 비용의 재원 조달은 오사카 흥업을 비롯하여 재일한인 기업인과 한인, 예컨대 이 축제의 운송수단인 대형 목선, 가마 등을 흥업의 고객들이 기부한 돈으로 제작하였다. 이 외에도 역사 고증과 가장행렬의 운송수단, 의상, 음악, 악기의 제작을 위해 한 일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았다. 행사 출연자는 약 4,000명으로 1.6Km에 걸쳐 가장행렬이 펼쳐졌다. 일본인 관람객들은 가장행렬을 통해 도래인의 역사를 보았으며, 새로운 형태의 축제를 경험하는 장이 되었다. 그리고 축제에 노태우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으며, 약 46만 명의 관람객이 구경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57) 이신철, “四天王寺왔소,”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3593> (검색일: 2022.01.15.).

58) EBS, “일본 땅의 우리 축제, 사천왕사왔소,” <https://www.ebs.co.kr/tv/show?prodId=6785&lectId=20058863>(검색일: 2022.01.14)

1991년 개최된 제2회 축제는 한반도로부터 사절단을 태운 3척의 배가 해상 퍼레이드를 한 후 오사카항에 도착하여 당국의 상륙허가를 받고 사천왕사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오사카가 고대부터 동아시아 국제교류의 거점지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⁵⁹⁾ 가장행렬에는 재일한인 등 4,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오사카 시민들에게 한반도 문화의 우수성을 알려주어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갈채를 받았다.

1992년의 제3회 축제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일 양국의 의해 검증된 1,400년 교류의 역사가 참가자 4,700명에 의해 재현되었다. 일본에 문물을 전한 가야·백제·탐라·고구려·발해·신라·조선과 중국(수·당)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사천왕사 경내에서는 몽고와 한국의 씨름, 일본의 스모(相撲) 등 놀이문화를 보여주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지난 3년간 개최된 사천왕사왔소 축제는 오사카시로부터 사회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오사카 '시민 창조상'을 받았다.

1998년 제9회 축제가 11월 3일, 우에시오(上汐) 공원에서 출발한 한국 전통 풍물패와 무희를 앞세운 가장행렬이 사천왕사까지 전개되었다. 한반도 및 중국의 복장을 한 전통 악대와 무희들이 흥을 돋우었고, 일본 전통 옷을 입은 수십 명이 배의 앞뒤에서 동아줄을 잡고 배를 끌고 당겼다. 풍물패와 무희, 배를 끌면서 축제에 직접 참여한 인원은 3,500명에 달하였다.⁶⁰⁾ 사천왕사왔소 축제는 재일한인들을 중심으로 2000년 제11회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일본 금융청과 금융재정위원회는 관서흥은에 대해 '채무초과(債務超過)'를 이유로 파산선고를 내렸다. 문제는 관서흥은의 파산으로 인한 축

59) 문제원·박수경, 『이카이노의 재현을 통해 본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공간의 로컬리티』, 『로컬리티 인문학』 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139쪽.

60) 시사저널, "재일동포 최대 축제, 사천왕사 왔소,"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90326>(검색일: 2022.01.15.).

제 지원의 중단과 함께 관련 물품의 폐기가 거론되었다. 2001~2002년까지 축제는 중단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후원자가 등장하였다. 이 축제는 오사카와 한일의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공감대 형성은 새로운 참여자를 유인하였다. 이우에 사토시(井植敏) 산요전기(三洋電機) 회장은 축제 물품의 보관을 위해 회사의 창고를 대여하면서 축제의 부활을 위한 후원과 많은 지원을 해 주었다.

축제 중단에 안타까워하던 한일의 기업, 단체,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발기인이 되어 재일민단 내에 NPO법인 ‘오사카와소문화교류협회(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会: 이하 와소문화협회)’를 만들어 중지되었던 축제를 2003년부터 재개하였다. 와소문화협회는 국적에 상관없이 많은 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사천왕사왓소 순행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 이해를 위한 국제 교류의 촉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여 문화의 보급·발전·향상에 기여하며, 오사카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⁶¹⁾

사천왕사왓소 축제의 제1기에 해당하는 1~11회의 축제는 타니마치스지(谷町筋)에서 시작되어 사천왕사까지 가장행렬을 전개했으며, 사천왕사가 축제의 주요 무대였다. 반면 제2기로 분류되는 2003년 제12회부터 2019년 축제까지는 주오구 나니와노미야(中央區 難波宮)에서 열렸다.⁶²⁾ 새로운 후원자의 등장과 함께 재개된 사천왕사왓소 축제는 제12회부터 참여인원의 구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 이전까지 축제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2003년의 축제는 우천 때문에 실내에서 약식으로 가장행렬과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관람객이 2만 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2년 동안 축제의 중단, 날씨의 영향은 초기와 비교하여 동력 약

61) 협회 구성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19명이며, 재일한인과 일본인이 균등하게 맡아서 법인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법인 이사장은 이노쿠마 카네가쓰(猪熊兼勝) 교토 타치바나대학(京都橘大学)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会, “設立趣意,” <http://wasso.net/%e8%a8%ad%e7%ab%8b%e8%b6%a3%e6%84%8f>(검색일: 2022.01.13.).

62) 김란정·박상훈, ‘앞의 논문,’ 13쪽.

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7년의 제16회 축제는 ‘우정은 1,400년의 저편에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프로그램은 전시행사, 시연·체험행사, 참여행사, 공연행사,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재일한인과 일본인 1,100명이 참여한 가장행렬의 경우, 각 시대의 전통 옷을 입고 순행(巡行)하면서 교류최사(交流催事) 형태로 진행되었다.⁶³⁾ 그리고 한국정부는 ‘사천왕사왔소 2007,’ 축제를 비롯하여 ‘제3회 한일 교류축제 한마당,’ ‘조선통신사 400주년 기념사업’ 등 한일 양국의 민간 차원 교류를 측면으로 지원하였다.⁶⁴⁾ 이는 한일관계가 국민교류 차원에서 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이다.

2010년 개최되었던 제19회 축제는 그 이전 축제들과 비교하여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고대 백제 음악의 진수인 ‘금동대향로 오악사 공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오사카의 나니와궁에서 고증을 통해 재현된 완함(阮咸), 백제고(百濟鼓), 백제금(百濟琴), 백제적(百濟笛), 소(簫) 등 금동대향로 오악기 연주를 통해 ‘산성의 아침,’ ‘백제여! 향로여!’ 등 백제를 상징하는 곡들이 재현되었다.⁶⁵⁾ 이는 백제의 유물을 통해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되새겨보는 기회였으며, 가장행렬과 공연의 참가자는 1,000명, 그리고 45,000명의 관람객이 참관한 것으로 나타났다.⁶⁶⁾

2011년 제20회 축제의 주제는 ‘환경, 자연과의 공생’이었으며, 형형색색의 고대 복장을 한 4,000여 명의 참가자들과 4만 명의 관람객 모두가 한 마음으로 ‘왓쇼이’를 외쳤다. 후원과 관련하여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축제의 후원자였던 산요전기가 파나소닉(Panasonic)으로 합병되면서 축제의 지속성과 연계하여 후원 문제가 현안

63) 마유리·김은정, 앞의 논문, 5쪽.

64) 외교통상부, 『2008년 외교백서』, 2008, 40쪽.

65) 在日本大韓民國民団, 『民団 70年史』, 東京: 彩流社, 2017, 273頁.

66) 광주매일신문, “‘사천왕사왔소’ 마츠리,” <http://www.kjdaily.com>(검색일: 2022.01.14.).

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파나소닉의 사천왕사왔소 축제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 약속과 함께 이희건 한일교류재단,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의 일본 현지법인 신한뱅크재팬(Shinhan Bank Japan) 등이 새로운 후원자로 등장하면서 축제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2005년, 2009년, 2011년 등 총 4회의 사천왕사왔소 축제는 우천으로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실내에서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축제 프로그램은 각 회수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2016년 제25회 사천왕사왔소 축제의 경우, 기존 프로그램에 몇 개의 새로운 장르가 추가되었다. 식전행사에 일본 천리대학의 '나소리(納曽利)', 오사카 백두학원 전통예술부의 '연례악 남사당놀이' 공연이 있었으며, 가장행렬과 공연을 기본으로 미니연극, 토크 이벤트, 체험광장 등이 새롭게 선보였다. 또한 '우정은 1,400년 전 저편에서'라는 주제의 토크 이벤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 강원도의 '볼거리'와 부여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가 소개되었다.⁶⁷⁾

2017년 제26회 축제의 주제는 '실을 잣다, 자아내다'로 정해졌다.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만남으로 인연의 실을 잣고, 인연과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들이 집을 짓고, 옷을 짓고, 시를 짓듯 이 우의를 더욱 굳건히 다져가 평화와 번영의 네트워크를 짓는 바탕이 되기 위함이다. 미니연극의 공연은 '불교의 전래와 도래문화'라는 주제로 일본에 대한 백제의 불교 전파를 소개하면서,⁶⁸⁾ 한일 교류의 중심에 오사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축제에는 약 4만 명의 관람객이 함께하였다.

67) 재외동포신문, “오사카 ‘제25회 사천왕사 왔소’ 축제 개최,”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843>(검색일: 2022.01.16.).

68)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2017년,” http://www.kocis.go.kr/kocc/view.do?seq=8981&langCode=lang001&menucode=menu0023&menuType=Kocis_Board_Ovr_Ctr&ctrCode=CTR0003&searchType=menu0023&searchText=&page=10(검색일: 2022.01.15.).

2018년 제27회 축제의 주제를 '잇다'로 선정하여 가장행렬과 공연을 진행하였다. 건국학교 학생들의 사물놀이, 김덕수 사물놀이패, 제주 무희들의 춤 공연과 함께 한국의 개령초등학교 학생들의 연주 행렬, 오사카 센신(宣眞)고교 댄스부의 고구려 행렬,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도래인들의 오사카 입성과 행차 모습이 재현되었다. 이 축제에 30개 학교와 기업들이 참가했으며, 1,300여 명이 가장행렬에 참여했다.

2019년 제28회 주제는 '도전한다'로 정하였다. 식전행사로 건국학교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미니역사극, 그리고 개회식 뒤 시대별 가장행렬,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일의 학교, 단체, 시민 등 1천 명이 참여한 가장행렬은 신화시대, 고분시대, 아스카시대, 나라시대, 조선왕조로 나누어 3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매년 10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축제를 개최하는 왓소문화협회는 2020년 8월 1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안전을 고려하여 11월 1일 나니와궁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사천왕사 왓소 2020' 축제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⁶⁹⁾ 30년의 축제 역사에서 2001년과 2002년에 이어 3번째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년도가 되었다.

사천왕사왓소 축제에서 가장행렬과 공연에 재일한인과 일본인이 적극 참여한 것은 쌍방향적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축제의 가장행렬과 공연의 전개는 참여자 및 관람객 모두에게 한일 교류문화에 대한 자긍심의 고취, 한반도 문화의 일본 전래를 통한 역사적인 교류 사실의 인지, 우리의 전통 공연을 통한 한국문화의 전파 등 전형적인 문화공공의 교의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69) 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会, “四天王寺ワッソ2020について” <http://wasso.et/news/%e6%96%b0%e5%b9%b4%e3%81%ae%e3%81%94%e6%8c%a8%e6%8b%b62020-2/> (검색일: 2022.01.13.).

〈표 2〉 사천왕사왔소 축제의 변천

구분	제1기	제2기
시기	1990~2000년	2003~2019년
주관	관서흥은(오사카흥은)	오사카왔소문화교류협회
장소	사천왕사	나니와궁터
프로그램	가장행렬, 공연	가장행렬, 공연, 전시·체험 행사 등
참여자	재일한인	재일한인, 일본인
후원	관서흥은	산요전기(2000~2010년), 파나소닉(2011~현재), 신한은행, 재일민단 등

사천왕사왔소 축제의 변천 과정은 장소, 주관 및 후원기관, 참여자를 기준으로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에 사천왕사왔소 축제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였다. 먼저 관서흥은의 파산 이전까지 축제의 주관기관으로 관서흥은과 직원들이 재정 및 인원 동원을 담당한 반면 파산 이후에는 산요전기, 파나소닉, 신한은행, 재일민단 등 여러 단체의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왔소문화협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축제 장소는 사천왕사에서 나니와궁터로 변경되었다. 가장행렬 및 예술 공연과 관련하여 제1기는 재일한인들이 중심이었다면, 제2기는 재일한인과 오사카 일본인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프로그램을 제1기와 비교하면 전시회, 체험 행사 등이 제2기부터 추가되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공공외교는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소프트파워, 즉 문화 영향력이라는 쌍방향 소통, 대중들의 참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핵심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사천왕사왔소 축제는 이 같은 3개의 요인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화공공외교의 사례에 해당한다. 첫째, 축제의 쌍방향 소통이다. 관서흥은의 파산으로 축제가 중단위기에 처하였다. 그러나 산요전기, 파나소닉, 재일민단, 신한은행을 비롯하여 오사카의 재일한인과 일본인들이 합심하여 새로운 주관단체를 설립하여 축제를 재추진하였다. 축제의 시발점은 재

일한인이었지만, 재추진 과정에서 일본 시민들의 축제에 대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확산, 지원이 없었다면 영원히 중단되었을 것이다. 축제의 추진 단체와 참가자, 지지자, 그리고 관람객 사이에는 쌍방향적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동력을 상실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사천왕사왔소 축제는 오사카를 대표하는 4대 축제가 되었다.

둘째, 일반 시민들의 참여이다. 이 축제는 고대 한반도의 문물이 일본에 전해진 과정의 복원과 재현을 위한 목적을 갖고 추진하였다. 가장행렬에서 문물을 전달하는 도래인과 이를 맞이하는 일본인의 역할은 재현 행사와 직접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참가자 모두는 축제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초창기의 축제는 재일한인들 위주로 가장행렬과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2003년 이후로는 재일한인을 비롯하여 오사카의 일본인 시민과 학생들도 축제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가 되었다.

셋째,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대회별로 최소 1,200명에서 많게는 4,700명에 달하였다. 이처럼 많은 인원을 동원하려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행사의 개최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예컨대, 제1회 축제에서 가장행렬과 공연을 연출한 허규 축제문화진흥회장은 이희건 행장과 친분이 있어 총감독을 맡았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30개 학교와 단체의 참여, 국립부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백제금동대향로의 전시, 부여시의 오악사 공연, 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 등은 왔소문화협회가 구축한 개인별·단체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 의사의 타진과 공연 참가의 협력을 이끌어 낸 기제였다. 협회는 오사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일민단 오사카본부, 재일본관서한국인연합회, 코리아NGO센터, 재일코리아청년연합, 오사카 우리민주연합 등 재일한인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매년 참가인원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한편 한일 양국은 문화공공외교 및 민간외교 차원에서 조선통신사 축제, 한일축제한마당, 사천왕사왔소 축제에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천왕사왔

소 축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높은 지원과 관심은 전·현직 대통령이 총 15회의 축전이나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제1회 축제,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제6회 축제에 축전을 보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에 축하,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006년, 2007년 등 3회에 걸쳐 축하를 보냈다. 2003년 제12회 축제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한일 양국의 우정과 문화교류를 기원한다는 차원에서 축하를 보내 대독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2011년, 2012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각각 3회의 축하를 보내서 한일의 문화교류를 축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2018년, 2019년 등 총 3회에 걸쳐 축하를 보냈다.⁷⁰⁾ 반면 일본의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6년과 2017년 2회에 걸쳐 축하를 보냈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보상 판결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그 이후에는 축하를 보내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와 한국의 '노재팬' 운동이라는 양측의 강경 대응의 충돌은 한일관계의 악화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축제의 주최 기관 및 주된 참여자들이 오사카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축제 동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일본은 축제의 국가로 매년 오사카에도 여러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텐진마츠리(天神祭), 이쿠타마여름마츠리(いくたま夏祭り), 스미요시마츠리(住吉祭り), 사천왕사왔소 등을 오사카의 4대 축제로 부르고 있다. 3개의 축제가 일본인들이 주관하는 축제인 반면 사천왕사왔소 축제는 한반도의 문물이 일본에 전해진 과정을 복원하여 재현한다는 점에서 오사카의 재일한인과 일본인이 함께하는 문화공공외교의 전형이다. 가장행렬과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한일의 교류 역사를 공유하고 우호친선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이 축제는 텐진·이쿠타마·스미요시 마츠리와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었다.

70)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연설문 목록,” <http://www.archives.go.kr>(검색일: 2022.01.16.).

4. 결론

세계적으로 문화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신공공외교는 소프트파워를 활용하여 자국의 이미지와 브랜드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신공공외교의 하위 개념인 문화공공외교는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쌍방향 교류와 소통, 대중의 참여,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소프트파워를 강조한다. 정치와 역사 등의 쟁점을 놓고 국가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화공공외교적 접근은 불통의 고리들을 유연하게 해소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이 연구는 문화공공외교의 사례로 오사카의 사천왕사왔소 축제를 분석하였다. 오사카의 사천왕사왔소 축제는 28회의 개최 역사를 갖고 있었다. 축제를 통해 재일한인과 일본인이 함께 협력하고 교류한 결과, 공생하는 공동체의 장을 만드는 효과를 산출했다. 축제에 내포된 문화공공외교의 요인은 첫째, 사천왕사왔소 축제는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교류 재현을 통한 ‘한일의 바른 역사’ 공유를 목적으로 열리는 민족축제이다.⁷¹⁾ 둘째, 오사카의 재일한인을 비롯하여 한일 양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가장행렬과 예술 공연은 우호친선의 상징이자, 시민참여형 축제의 표본이었다. 셋째, 사천왕사왔소 축제는 초창기에 재일한인을 중심으로 자발적·자생적 축제로 출범하였다. 지속적인 축제의 개최는 동포들에게 민족정체성의 확인, 뿌리에 대한 자신감 부여, 또 다른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이 축제는 후원자인 관서흥은의 파산으로 중단되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제2기는 재일한인 외에도 일본인 기업, 단체 및 개인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으로 왔소문화협회를 설립하여 재개되었다. 오사카 일본인 시민들의 협회 참여는 축제의 지속성,

71) 이신철, ‘앞의 인터넷,’ 자료.

오사카 및 한일의 문화유산의 보존, 쌍방향 소통, 개방적 네트워크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 다섯째, 오사카의 여러 축제 가운데 사천왕사왔소 축제는 한일 양국의 정상이 축사를 전하는 유일한 행사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재일한인들은 축제를 활용하여 유구한 한민족의 문화를 재현하고 홍보함으로써 모국의 국가 이미지 및 소프트파워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었다. 예컨대 재외동포신문, 월드코리아신문, 민단신문, 통일일보, 주오사카 한국문화원 등이 사천왕사왔소 축제 관련 소식을 매년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여 문화공공외교를 위한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공공외교의 자원으로 재일한인들의 소프트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재일한인들은 모국과 거주국 간 우호증진 및 협력관계의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한류 확산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행사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축제의 동력 약화를 해소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축제에서 성공의 척도는 프로그램의 높은 완성도,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그리고 많은 관람객의 동원이다. 사천왕사왔소 축제는 관람객이 무료로 입장하여 즐기는 행사이다. 초창기에는 약 40만 명 이상의 오사카 시민들이 축제를 관람하였다. 그러나 2년간의 중단 이후, 재개된 축제의 관람객은 평균 4만 명으로 나타났다. 4만 명의 인원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지만, 초창기 관람객과 비교하면 1/10에 불과하다. 축제의 동력 약화를 해소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한류의 인기를 고려한다면 한국 아이돌 가수들이 공연하는 것 또한 관람객을 유인하고 증원하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한일 양국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부교재에 사천왕사왔소 축

제 내용을 수록한다. 한국 역사교과서연구회와 일본 역사교육연구회는 도래인의 역사와 함께 사천왕사왔소 축제의 내용을 공동으로 집필했으며, 이 내용들이 오사카부(大阪府)의 중학교 역사 부교재 '중학교의 역사자료'에 수록되었다. 또한 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 부교재인 '일한교류의 역사'에 사천왕사왔소 축제의 내용이 실렸으며, 가장행렬의 장면이 표지로 채택되었다.⁷²⁾ 이는 한반도 '도래인의 기록'과⁷³⁾ 함께 한일 교류사의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고 재현한 사천왕사왔소 축제가 이끌어 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이 교류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의 역사 교과서에 사천왕사왔소 축제를 소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다문화공생(multicultural coexistence)을 실천하는 장(場)으로 축제를 활용한다. 한일 간 첨예한 갈등이 있지만 오사카의 재일한인과 일본 시민들은 상호 존중과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다문화공생 이념을 축제를 통해 실천하고 있었다. 오사카 시민들이 시대와 국적을 초월하여 한마음 한뜻(一心一意)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즐기는 것은 다문화공생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재일한인들의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축제는 재일한인들만의 행사가 아닌 지역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재일한인과 일본인 모두가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72) 이민호, '앞의 책,' 50쪽.

73) 2015년 일본 문부성의 검정에 채택된 8종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도래인' 또는 '귀화인'과 관련하여 출신, 이주 배경, 도래 후 일본열도에 전파한 기술과 문화 요소, 이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서보경,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고대 한일 관계 기술의 분석: 渡來人·歸化人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68, 한일관계사학회, 2020, 6-9쪽 참조.

㉑ 참고문헌 |

- 고종원 외, 『세계의 축제와 관광문화』, 서울: 신화, 2018.
- 김란정 · 박상훈, 2018, 「祭りを通した国際交流の理解: 日本の四天王寺ワッソと韓國の朝鮮通信使祭りを事例として」, 『지역산업연구』 41-3, 경남대 산업경영연구소, 2018.
- 김상배, 「공공외교의 이론적 이해」, 김상배 외, 『지구화 시대의 공공외교』,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김양주, 「‘마츠리’의 생성과 일본사회문화, 그리고 ‘축제-되기」, 류정아 외, 『세계 축제의 향연』, 광주: 심미안, 2015.
- 김태환, 「21세기 신 공공외교와 포럼외교」, 『제주평화연구원 JPI정책포럼』 2011-12, 제주평화연구원, 2011.
- 김현선, 「재일코리안의 축제와 민족정체성」, 『일본연구논총』 26, 현대일본학회, 2007.
- 김희정, 「재일동포사회의 통일문화운동 원코리아페스티벌」, 『디아스포라연구』 12-2,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2018.
- 노성준, 「공공외교 자산으로서의 한류 현황과 국회의 대응과제」,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66, 국회입법조사처, 2020.
- 니콜라스 J. 컬, 「공공외교: 분류학 및 역사」, Geoffrey Cowan · Nicholas J. Cull, 『Public Diplomacy in a Changing World』, 최영종 감수, 『새 시대의 공공외교』, 고양: 인간사랑, 2013.
- 마유리 · 김은정, 「한국과 일본 축제의 백제복식 재현에 관한 연구: 백제문화제와 사천왕사왕소축제의 행렬복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9-5, 대한가정학회, 2011.
- 문재원 · 박수경, 「이카이노의 재현을 통해 본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공간의 로컬리티」, 『로컬리티 인문학』 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 박수경, 「재일 코리안 축제와 마당극의 의의: 生野民族文化祭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45, 한국일본문화학회, 2010.
- 백우열, 「한국 공공외교 전략 및 정책 연구」, 『국가전략』 23-3, 세종연구소, 2017.
- 서보경,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고대 한일 관계 기술의 분석: 渡來人 · 歸化人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68, 한일관계사학회, 2020.
- 손미경, 「오사카 원 코리아 페스티벌: 통일운동에서 다문화 공생의 장으로」, 『재외한인연구』 23, 재외한인학회, 2011.
- 신동민, 「공공외교 목표와 추진방향의 개념적 재모색: 국제관계학 고전적 현실주의 시각에서」, 『사회융합연구』 4-2, 대구과학대 국방안보연구소, 2020.
- 신진, 「문화교류의 활성화와 한류의 확산의 영향력과 공공외교」, 『대한정치학회보』

- 21-1, 대한정치학회, 2013.
- 에이탄 길보아, 「공공외교 이론의 모색」, Geoffrey Cowan · Nicholas J. Cull, 『Public Diplomacy in a Changing World』, 최영종 감수, 『새 시대의 공공 외교』, 고양: 인간사랑, 2013.
-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21』, 2021.
- 외교통상부, 『2008년 외교백서』, 2008.
- 유기준, 「시텐노지왓소와 在日코리안 文化의 役割 研究」, 『일본문화학보』 44, 한국일본문화학회, 2010.
- 이민호, 『韓流축제의 再발견, 왓소에 오이소』, 서울: 통일일보, 2019.
- 이신철, 「재일동포사회의 통일운동 흐름과 새로운 모색: 원코리아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사림』 52, 수선사학회, 2015.
- 이진영, 「문화외교와 소셜미디어 활용: 디지털 문화공공외교의 대두와 개념화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5-4, 한양대 평화연구소, 2018.
- 임영언 · 김한수, 「재일코리안 기념비 건립에 의한 민족정체성 확립과 문화공공외교 성과 고찰」, 『일어일문학』 68, 대한일어일문학회, 2015.
- 임채완 외,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혼종성과 문화영토』, 성남: 북코리아, 2015.
- 전진호, 「원 코리아 운동과 한인 디아스포라」, 『일본연구』 30,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18.
- 정병호, 「세시와 놀이」, 국립민속박물관, 『일본 관서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2002.
- 주동완,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활용한 오사카 ‘이쿠노 코리타운 마츠리’의 발전방안」, 『재외한인연구』 40, 재외한인학회, 2016.
- 지충남, 「재일동포와 원코리아페스티벌」, 『OUGHTOPIA』 28-1,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3.
- 지충남, 「재일한인의 다문화공생 수용에 관한 갈등 양상: 오사카시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20-3, 한국평화연구학회, 2019.
- 최은미, 「갈등과 협력의 한일관계, 20년의 변화와 성찰(1998~2017)」, 『평화연구』 26-2,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 연구소, 2018.
- 한영균, 「일본 내 한류의 현황과 한일관계: 한류의 문화외교 기능을 중심으로」, 『국제학논총』 32,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0.
- 한인희, 「한국과 대만의 ‘문화외교’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11-4, 한중사회과학학회, 2013.
- 허성태 · 임영언, 「일본정부의 위안부문제 인식과 동포사회의 공공 외교적 대응 고찰: 위안부기념비 건립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4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6.
- 허용선, 『환희와 열정의 지국춘 축제 기행』, 서울: 예담, 2003.

- 홍석인, 『그래서 공공외교가 뭔가요?』 한국국제교류재단, 2019.
- 황혜경, 「재일코리안에 있어서 민족축제 의미와 호스트사회와의 관계」, 『일본문화학보』 46, 한국일본문화학회, 2010.
- 후지사와 키이치 · 김승배, 「협동적 공공외교로서의 한일관계: 조선통신사의 공유와 가시화」, 『한국정치학회보』 52-2, 한국정치학회, 2018.
- Cull Nicholas J., *The Cold War and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American Propaganda and Public Diplomacy, 1945~198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Goldblatt Joe Jeff & Kathleen S. Nelson, *Th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vent Manage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2001.
- Leonard Mark, Catherine Stead and Conrad Smewing, *Public Diplomacy*, London: The Foreign Policy Centre, 2002.
- Nye Joseph,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 Osgood Kenneth A. and Brian C. Etheridge, "The International History Meets the New Cultural History: Public Diplomacy and U.S. Foreign Relations" Kenneth A. Osgood and Brian C. Etheridge ed., *The United States and Public Diplomacy: New Directions in Cultural and International History*,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0.
- Watson Iain, "South Korea's State-led Soft Power Strategies: Limits on Inter-Korean Relations,"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0, No.3, 2012.
- 飯田剛史, 「民族まっりの展開と課題」, 『宗教研究』 87, 日本宗教学会, 2014.
- 飯田剛史, 「在日 コリアンと大阪文化: 民族祭りの展開」, 『フォーラム現代社會學』 5, 関西社会学会, 2006.
- 飯田剛史, 「在日コリアンの祭りと民族-民族文化運動の自己組織化」, 『在日コリアンの宗教と祭り-民族と宗教の社会学』, 東京: 世界思想史, 2002.
- 上田正昭, 「四天王寺ワッソと難破の再生」, 上田正昭 編, 『アジアと海上の道-古代史の視座』, 東京: 明石書店, 1997.
- 在日本大韓民國民団, 『民団 70年史』, 東京: 彩流社, 2017.
- 鄭甲寿, 『ハナ ワンコリア道草回顧録: ハナ(하나)』, 東京: ころから, 2015.
- 北野充, 「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とは何か」, 金子将史 · 北野充 編, 『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 イメージを競う国家間ゲームにいかにか勝利するか』, 東京: PHP研究所, 2014.
- 광주매일신문, 「'사천왕사 왔소' 마츠리」, <http://www.kjdaily.com>(검색일: 2022.01.14.).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2017년」, http://www.kocis.go.kr/kocc/view.do?seq=8981&langCode=lang001&menucode=menu0023&menuType=Kocis_Board_Ovr_Ctr&ctrCode=CTR0003&searchType=menu0023&searchText=&page=10(검색일: 2022.01.15.).

시사저널, 「재일동포 최대 축제, 사천왕사 왔소」,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90326>(검색일: 2022.01.15.).

외교부, 「공공외교란?」, <http://www.mofa.go.kr/trade/cultural/public>(검색일: 2022.04.03.).

이신철, 「四天王寺왔소」,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3593>(검색일: 2022.01.15.).

재외동포신문, 「오사카 '제25회 사천왕사 왔소' 축제 개최」,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843>(검색일: 2022.01.16.).

최석원, 「1천 4백년 전의 韓流, 사천왕사 '왔소' 축제」, <http://kjha.kongju.ac.kr/exhibits/show/exhibit-index-07/item/59202>(검색일: 2022.01.1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연설문 목록」, <http://www.archives.go.kr>(검색일: 2022.01.16.).

허규, 「거리축제 '四天王寺 왔소!'와 축제의 기능」, https://www.arko.or.kr/zine/artspaper90_09/19900902.htm(검색일: 2022.01.15.).

EBS, 「일본 땅의 우리 축제, 사천왕사왔소」, <https://www.ebs.co.kr/tv/show?prodId=6785&lectId=20058863>(검색일: 2022.01.14.).

大阪市, 「推計人口・人口異動」, <https://www.city.osaka.lg.jp/toshikeikaku/page/000014987.html>(검색일: 2022.01.09.).

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会, 「四天王寺ワッソ2020について」, <http://wasso.net/news/%e6%96%b0%e5%b9%b4%e3%81%ae%e3%81%94%e6%8c%a8%e6%8b%b62020-2/>(검색일: 2022.01.13.).

大阪ワッソ文化交流協会, 「設立趣意」, <http://wasso.net/%e8%a8%ad%e7%ab%8b%e8%b6%a3%e6%84%8f>(검색일: 2022.01.13.).

| Abstract |

A Study on Culture Public Diplomacy
in Korean-Japanese People
- Focusing on the Festival of Shitennoji Wasso

Ji, Choong-Nam

This study analyzed the festival of Shitennoji Wasso that is known as 4 festivals of Osaka corresponding to a case of culture public diplomacy. This festival, which has the 28 year history, is implying symbolism for the cultural exchange revival and the amity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e transition process in the festival was divided into the primary stage from the year in 1990 to the year in 2000 and the secondary stage from the year in 2003 to the year in 2019 based on places, supervising & sponsoring agencies, and participants.

In terms of the factors based on culture public diplomacy of this festival, first, it is the ethnic festival that is held with the aim of sharing 'the truthful history of Korea and Japan.' Second, the interactive communication and the open network were developed into the citizen participatory festival in which the Korean-Japanese people and the Japanese citizens in Osaka get together. Third, it is contributing to reviving and publicizing the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Fourth, it is the only festival in Osaka to which the leaders of Korea and Japan deliver a congratulatory speech.

With regard to implications, first, Korean-Japanese people need to be positively applied to the resource of culture public diplomacy

for raising national image. Second, a plan is pursued for removing the weakening power and for activating the festival. Third, the contents on the festival of Shitennoji Wasso are included in the supplementary education materials of a history textbook for middle and high schools in both Korea and Japan. Fourth, the festival is used as a stage that practices multicultural symbiosis.

Key Words: Culture Public Diplomacy, Shitennoji Wasso, Festival, Korean-Japanese, Osaka

· 논문투고일: 2022년 8월 19일 · 심사완료일: 2022년 10월 27일 · 게재결정일: 2022년 10월 27일
